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맞은 편 의회광장에 인도의 민족영웅 간디 동상이 세워졌다고 한다. 잘 알려진 대로 간디는 영국의 식민지배정책에 비폭력과 무저항으로 맞서 마침내 독립을 쟁취한 위대한 정치지도자였다. 그 과정에서 간디는 인류에게 소중한 평화의 메시지를 선물했다. 간디의 비폭력과 무저항정신은 인도를 대영제국의 엄혹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준 원동력이었다.

그런 간디를 가리켜 영국 수사 처장은 '별거벗은 비렁뱅이'에 불과한 간디가 수행자인척 행세하지만 사실은 선동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처장은 그런 간디가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저주를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영원히 사이 좋게 지내야 할 모양이다. 두 사람의 동상이 불과 몇 십 미터를 사이에 두고 같은 광장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 나름의 과거사 반성을 상징하는 커다란 사

건이 아닐 수 없다.

독일도 2차 대전과 유대인 학살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끊임없는 반성과 꾸준한 보상을 통해 자신들의 죄 값을 묵묵히 치러왔다. 1970년 독일총리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 추모비 앞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은 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독일국민들은 말이나 퍼포먼스로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세워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전쟁피해자 166만 6천명에게 5조 3660억 원을 배상했다. 우리는 이 재단의 명칭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를 미래에까지 계승함으로써 두 번 다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독일과 함께 전범국가인 일본의 역사인식은 이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다. 행동은커녕 말로도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온갖 해괴한 논리와 억지를 부려왔다. 참으로 불쌍사나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이와 같은 태도에 전쟁의 피해자인 주변국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일본의 아베정부는 자

기 같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세계평화가 위협받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 지금 일본은 경제력을 앞세워 군사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달이 나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국익과도 맞아 떨어져 한 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아베 총리의 속마음은 당장이라도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일본을 방문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과거와 제대로 마주했다'는 말과 함께 '일본은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의 식민지국가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우리로서는 메르켈총리의 적절한 훈수가 속 시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노련한 정치가인 메르켈은 덧붙여서 '주변국은 인내하고 관용해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메르켈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메르켈의 지적은 일본에게는 잘못된 인정을 그리고 한국과 중국 등의 주변국들에게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함께 나갈 것을 주문하는 듯한 말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사회의 반일정서상 후자에

방점을 찍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질서는 냉엄한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일본을 향해 언제까지나 도덕적인 반성만 촉구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일본을 국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들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용서할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불 속에서의 만세 부르기는 잠시 후련할 뿐이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사과와 참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대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의 빈 의자에 장미꽃을 들고 찾아와 헌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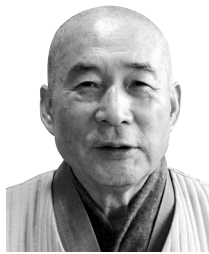
아직은 도쿄 한복판에 우리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와 그들의 자랑인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는 광경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성 싶다.

이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간디 동상, 日 반면교사 삼아야

발언대

교계 갈등을 바라보며



법집 스님 태고종 보타거사 회주

하루는 스승이 제자를 만나 물었다. "가시나무를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그럼, 가시나무는 어떤 종류들이 있던가?" "뿔자나무, 쫄레나무, 장미꽃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시 달린 나무로 넓이가 한 아를 되는 나무를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가시가 달린 나무는 한 아를 되게 크지는 않는다. 가시가 없어 야한 아를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시가 없는 나무라야 큰 나무가 되어 집도 짓고 상량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가시 없는 큰 나무는 다음으로 쓸 수 있지만 가시 있는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느니라" "....."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시가 없는 사

람이 여러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훌륭한 지도자이며, 리더가 될 수 있는 그곳이다. 가시는 남을 찔러서 아프게 한다. 그리고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한다. 입을 통해 나온 말의 가시, 손발을 뻗어서 나온 욕신의 가시, 욕심을 통해서 나온 마음의 가시 등은 피해를 입힌다. 나 무도 가시가 없어야 다음으로 널리 쓰이듯 사람도 가시가 없어야 우주를 살려내고 인류를 살려내는 동양이 될 수 있다.

요즈음 그 어느때보다도 시방세계가 시끄럽다. 우선 내가 몸담고 있는 한국 불교 태고종이 그렇고, 종편학교인 동국대 총장과 이사장 선거도 잡음이 강하다. 이외에도 우리 불교계엔 갈등이 늘고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우리 수행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원용무애(圓融無礙)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이는 막힘과 분별과 대립이 없이 두루두루 통하는 상태로 흔히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여긴다. 원용무애의 본래 취지는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불교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

다. 즉 깨달음 이후의 부처님의 전 생애는 원용무애의 삶이었으며, 이러한 붓다의 원용무애의 정신은 대승불교에 계승 발전됐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전 역사는 원용무애에 입각해 전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타르타가 행한 수행은 극단과 편견, 차별과 대립을 넘어선 중도(中道)이며, 그러한 중도 수행을 통해 획득한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설(緣起說)로써, 모든 존재는 막힘없이 상호 의존적으로 관계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기와 중도는 '서로 차별됨이 없이 원만하게 융합 의존한다'는 원용무애 정신의 근간이 된다. 불교의 세계관과 실천관은 연기와 중도, 다시 말해 원용과 무애 이 두 축에 토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용은 원만하게 두루 융섭하여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연기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무애는 치우침이나 편견 없이 서로 통하여 완전한 일치 내지 조화를 뜻하는 중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용과 무애는 연기와 중도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말만 들

어도 금방 마음이 등글게 되어지는 것 같다. 앞으로 서로 같든지 말고 원용 무애하게 살았으면 한다. 원만하고 융통하여 결림이 없게 말이다. 서로 좀 다르면 어떤가, 다름을 인정하는 하모니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각각의 것들이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 완전히 일체가 되어 서로 융합하고 방해하지 않게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우리는 많은 불자들에게 탐진치삼독심(貪瞋癡三毒心)을 멀리하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들이 삼독심에 빠진다면 금계를 지켜 득과(得菓)하여 환도증생(還度衆生)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수렁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 넣는 꼴이 된다. 따뜻한 불이 오고 있다. 정경에서 벗어나 상존을 맞자. 마음 속에 깊이 박힌 상처들을 서로 훌훌 털어내고 서로를 보듬어 주자. 서로 조화를 이뤄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지금의 자연처럼 말이다. 과연 언제일까? 기다려 진다. 우리 속에 박힌 아집의 가시를 제거 하는 날이.

아집의 가시 언제 제거될까?

문화재 도난 범죄 공소시효 연장돼야

도난문화재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월 9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절취 또는 은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25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에는 도굴에 대해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정했다. 이는 문화재 절도 행위를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로 본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상 최장의 공소시효 기간이다.

사실 도난문화재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주장은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실제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인사동의 한 옥션에서 회수한 도난 성보문화재의 경우 도난품을 경매에 출품한 사립박물관장 권모 씨는 처벌을 받았지만, 권 씨에게 이를 판매한 12

명 중 10명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받지 않았다.

조계종이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도 문화재를 도난해 은닉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부장 헤일 스님은 본지와 통화에서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공소시효 폐지가 최선이지만 25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난 것은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헤일 스님의 말대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궁극에는 문화재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 관할 지자체 도난 여부 심사 등을 거쳐 매매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허가 받지 않고 매매된 문화재가 도난품으로 확인되면 매매를 무효로 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공소시효 연장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초석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중도가' 학계 진위연구 필요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1377년 간행)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이 발견됐다는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주장과 관련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직지의 고장'인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박 원장은 3월 17일 "남명천화상송중도가(南明泉和尚頌道歌·약칭 중도가)는 목판본이 아니라 직지보다 138년 앞선 1239년에 간행된 최고 금속활자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문제의 판본(보물 제758-2호)과 목판본 중도가(보물 제758호)를 놓고 농담(濃談), 활자 움직임, 쇠평자국 등을 비교해 전자를 금속활자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따르면 보물 제758-2호 중도가는 고종26년(1239년) 무신정권 주장인 최기가 쓴 발문을 토대로 목판본으로 여겼다.

'어시모공 중조주자본 이수기전언'(於是募工 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이라는 발문은

"기술자를 모집해 주자본을 놓고 다시 목판본으로 새겼다"는 뜻으로 해석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금속활자본을 목판본으로 다시 새겼다는 것이다. 고인쇄박물관측은 "새겼다"는 것은 목판을 의미한다"라며 "활자는 주조했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동안의 정설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박 원장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밀한 검토를 거친 끝에 금속활자라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목판본일 수가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250여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 중도가자 자체가 세계 최고 금속활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도가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학계를 관습을 갖고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쇄사의 역사 지도가 바뀔지도 모르는 중대사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512-5003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성지관음회"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입니다.

인간의 길흉화복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혼들의 영향력 확인 천도법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내가영혼을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법. 환자와 가족이 확인
1 영가장애를 상담자리에서 영가가 누구인지 확인체형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가능 (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 확인)
3 인체오라장 (생명전기장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빙의 확인 치유과정 확인)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질환의 구분 (질환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5 보라색과 파란빛, 황금빛으로 영가들이 천도되는 것을 확인
6 암, 당뇨, 고혈압, 중풍, 치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빙의, 무속병, 환청, 환시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질환의 원인규명 (유전병 치료, 특이성 질환)
7 영가들의 수준확인
8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도 진도가 없는분 스님, 불자분, 포교원
9 기도명상, 만트라진언, 영언수련을 통한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삶의 가치확립, 영혼의 윤회 과정을 확실히 알
검색 유튜브강의 자각선원
네이버카페 자각선원
자각선원 (인체전기파동의학) ☎ 043)296-5258.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원봉로 93